



관광객 증가에도
면세점 매출 폭
체질변화 시급
L1



Life

제약·바이오
건기식·화장품 등
사업 다각화 성과
L2



문화재 지키고, 보육원 후원... 작은 나눔이 미래의 희망으로



흥국생명

역사 인식개선·문화재 지킴이 활동
창덕궁 내 정원 조성, 환경개선 작업

산불피해지역 고객에 맞춤 금융지원
원리금 유예, 이자 감면 등 부담 줄여

“흥국생명은 언제나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도(精道) 경영을 추구합니다.”

70년 넘는 전통 위에 선 김대현 흥국생명 대표이사는 ‘고객과 함께 숨쉬며 내일을 꿈꾸는 회사’를 약속하면서 “보험의 본질은 위험을 덜고 희망을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은 현장에서 구체적 사회 공헌으로 구현되고 있다.

흥국생명은 올해 문화유산 보존·재난 금융지원·취약계층 돌봄·자원순환 캠페인 등 ‘네트워크형 나눔’에 참여했다. 창덕궁 환경정비, 산불 피해 금융지원, 빵·육아키트 제작, 물품 기부 등 활동별 특화 프로그램만 10여건에 달한다. 현장 참여 인원은 400여명, 기부·후원 규모는 1억원을 넘어섰다. “작아 보여도 꾸준한 나눔이 고객 신뢰로 돌아온다”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 문화·환경 함께 지켜 미래를 밝히다

흥국생명은 역사 인식 개선 및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과거를 지키는 일이 결국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방침에서다.

지난 4월 서울 창덕궁 정원에서 ‘국가유산 지킴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관광객의 쾌적한 관람을 돕기 위해 창덕궁 내 정원 조성 및 환경 개선 작업에 힘을 보탰다. 현장에서는 전문가의 국가유산 해설을 통해 창덕궁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문화 보존의 열기는 자원순환으로도 이어졌다. 5월 본사에서 열린 ‘임직원 물품기부 캠페인’에는 의류·가전·도서 등 250여점이 모였다. 공기청정기·가습기 등 위생가전과 유아용품, 식품류는 모두 미사용 제품으로 실용성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흥국생명 임직원들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국가유산 지킴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서울시립 서대문 노인복지관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승희 흥국생명 인사팀장(오른쪽)이 지난 1월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이성일 인천 해피홈 보육원 원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미혼모 가정에 전달할 수면조끼 및 육아키트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흥국생명

이번 캠페인은 자원순환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됐다. 기부품은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되고 수익금은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흥국생명은 “쓰지 않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 재난과 금융 사각지대에 ‘든든한 버팀목’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자 흥국생명은 산불 피해 지역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보험료·대출원리금 6개월 유예, 사고보험금·제지급금 신속 지급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즉시 가동했다. 보험계약 대출이자 감면 혜택도 추가로 제공해 재난 피해 고객

금융취약계층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배구단과 기부금 적립해 보육원 후원

임직원·가족 직접 만든 빵 나눔 활동 수면조끼 등 제작해 미혼모가정 전달

의 부담을 줄였다.

금융취약계층 보호책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 진행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서는 고령층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최신 피싱 수법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법을 강의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건강검진 결과’,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해 악성 링크를 보내

는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을 소개하고 피해 상황 발생 시 경찰 및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용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흥국생명은 “디지털 금융이 발전할수록 취약계층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현장 목소리에 따라 금융사지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이들의 꿈·가정의 안심을 위한 따뜻한 손길

올해 1월엔 프로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 홈경기장에서 해피홈 보육원 아동에게 600만원을 후원하고 경기 관람 기회를 선물했다. 후원금은 노후 시설 보수와 학습환경 개선에 쓰였다.

후원은 핑크스파이더스 배구단의 연고지인 인천 지역 아동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나눔활동의 일환이다. 지난해 서브에이스 기록을 통해 적립한 600만원을 후원한 데 이어 올해로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사랑의 빵 나눔’ 현장에서는 임직원과 가족 30여명이 참여해 약 400개의 빵을 직접 만들고 포장했다. 완성된 빵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40여가구에 전달됐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빵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는 빵 나눔과 밀박스(식료품 상자) 전달, 동절기 연탄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동안 적십자사에 기부한 누적 기부금은 약 6500만원에 달한다.

6월에는 임직원 70여명이 수면조끼·육아키트 80세트를 제작해 전국 미혼모 가정에 전달했다. 육아키트는 미혼모 가정의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실용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구성됐다. 키트에는 ▲디지털 체온계 ▲유아용 물티슈 ▲손목보호대 ▲멀티비타민 ▲유아 간식 등 다양한 생필품을 담았다.

김대현 흥국생명 대표는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은 고객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다”며 “친환경 기업 활동, 다양한사회공헌및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나눔의 실천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2026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 도시로 부산 선정
▲엄원상·송민규·이상현 등 371명, 2026년 FA 자격 취득 /사진 뉴시스

▲“스포츠 중계권 담합”...중앙그룹, 공정위에 지상파 3사 제소
▲이종범 예능행 논란·이정후 부진...바람의 가문 ‘눈물’

▲프로야구 LG 김현수, 올스타전 역대 최다 16번째 출전
▲백남준의 일상·건축 모형...국립현대미술관, 자료 3만점 수집